



가덕도신공항은 대한민국의
미래를 여는 경제공항입니다!

가덕도신공항

② 오해와 진실 ③

가덕도신공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제공항입니다!



가덕도신공항 오해와 진실

오해. 1

정치·선거용? ▶ 과학적 검증결과!



- 과학적·기술적 검증을 통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판단
 - ▶ 수천페이지의 검증자료와 80차례 회의, 현장조사, ICAO 자문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
- 김해신공항이 오히려 정치적 결정
 - ▶ 2016년 ADPi는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했다고 발표

오해.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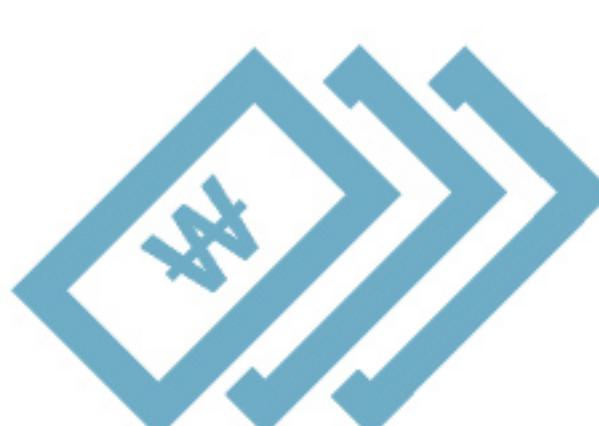
적자공항? ▶ 알짜 경제공항!



- 영남권 신공항은 **충분한 수요로 이미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**
 - ▶ 김해공항은 연간 1,000억원 이상의 흑자공항
 - ▶ 국제선 여객은 정부 예측보다 7년 단축(2018년 천만명 달성)
- 가덕은 **여객뿐만 아니라 복합화물 처리로 대한민국 물류 대혁명 견인**

오해. 3

사업비 과다? ▶ 김해신공항 사업비 수준!



- 해상매립 축소(75%→43%)
- 김해신공항 사업비 범위내에서 가덕도신공항(활주로 1개) 건설 가능
 - ▶ 김해 8.5조원(장애물절취비, GB보전부담금 등 포함), 가덕 7.5조원

오해. 4

접근성 불리? ▶ 부울경 1시간 접근 가능!



- 기 구축된 부산신항 연결 교통시설로 접근 용이(신항 배후도로 및 철도)
- 부울경 **1시간내** 접근 가능(새롭게 건설 중인 주변 교통망 확충)
 - ▶ 인천공항~서울역: 1시간20분 소요

오해. 5

지반침하 우려? ▶ 침하관리 가능!



- 가덕은 연간 침하량 7mm 예상(간사이공항 1/10 수준)
 - ▶ 연약지반의 깊이와 면적은 김해보다 적음
- 부동침하 최소화 공법 시공으로 해결가능

오해. 6

자연재해? ▶ 안전성 확보!



- 표고 40m로 조성하여 태풍·해일 등에 대비한 **안전성 확보(간사이 5m)**
 - ▶ 안개일수는 인천의 1/4 수준에 불과하여 안전운항에 유리
- 풍향과 활주로 방향 일치로 측풍 영향 미미

오해. 7

공역간섭? ▶ 비행경로 분리 운영가능!



- 김해와 가덕의 항공기 비행절차는 수평 및 고도 분리 가능
- 김해와 가덕 거리는 약 13NM, 더 가까운 **국내외 근접 공항 동시 운영 사례** 다수
 - ▶ 오산, 수원공항 / 뉴욕 라파디아, JFK, 뉴어크 공항

오해. 8

장애물 충돌? ▶ 충돌위험 없음!



- 해안공항으로 진입표면 고정장애물 없으며 가덕수도 통과 선박 영향 없음
- 조류 서식지(을숙도 등)와 원거리에 위치, 조류충돌 가능성 미미

오해. 9

환경파괴? ▶ 환경피해 최소화!



- 가덕도 인근 **부산신항 매립사례**, 해양오염과 해상환경 변화 거의 없음
- 부지내 절취공사 활용, 김해신공항과 달리 **외부 산악 절취** 없음
 - ▶ 김해신공항은 공항부지 외 항공기 진입표면에 7개 산봉우리 제거 필요

오해. 10

합의 위반? ▶ 대구·경북이 위반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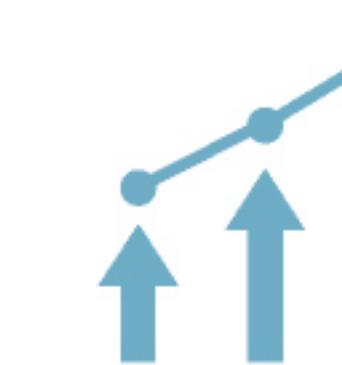


- ADPi 김해공항 확장은 **대구공항**을 국내선으로 존치시키는 시나리오
- **대구·경북은 김해신공항 불수용(2016.7월), 김해신공항 부적절 결론(2017.9월)**
- 5개 시·도 합의는 **대구·경북이 위반**(대구·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중)

인천공항 사례



- 인천국제공항은 4차례의 입지 변경을 거쳐 해안공항으로 확정
 - ▶ 김포 확장(1970) → 군자(1980) → 청주(1984) → 영종도(1990)



- 인천국제공항 건립 시 접근성, 연약지반, 사업비, 환경훼손 등 **가덕과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으로 성장**